

전국 '후끈' 교육감 후보단일화 제주 '잠잠'

김광수 vs 고의숙 vs 송문석 '3파전' 구도 진보 성향 시민단체 중심 단일화 요구 감지 김 교육감도 이전 후보단일화 이뤄내 압승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남긴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교육감 선거 주자 간의 단일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에선 관련 논의가 잠잠하지만, 최근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주·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향후 교육감 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금까지 후보 간의 단일화가 큰 변수로 작용해 왔다. 진보, 보수 성향이 비슷한 후보가 여러인 상황에서 단일 대안을 갖추는 게 선거 '필승 카드'로 통하면서다. 특히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교육감과 맞붙는 주자들은 성향이 맞는 상대와의 단일화를 통해 존재감을 키워 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바로 직전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며 3선에 도전한 이석문 도교육감을 14.95%p 표 차이로 따돌리며 압승했다. 첫 대결인 2018년 선거에선 현역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그해에도 '보수

단일 후보'로 추대됐던 김 교육감(당시 교육의원)과 이 교육감의 표차이는 2.41%p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초박빙'이었다. 진보, 보수 후보 간의 1대 1 대결 구도가 현역 후보의 이점을 상당 부분 희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유효율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뛰어드는 주자 간의 단일화 움직임이 분주하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등 곳곳에서 후보나 시민단체·기구를 중심으로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달리 김광수 교육감과 고의숙(전 교육의원), 송문석(전 서귀중앙여중 교장) 예비후보 간의 '3파전 구도'를 보이는 제주에선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직인 김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 운동에 나섰다. 현재까지 후보 간의 '몰밀 접촉'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도내 민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고의숙 전 교육의원 송문석 전 교장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고의숙, 송문석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고의숙 예비후보는 11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민주·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준비하는 기구나 모임을 만들어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고 답변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단일화는 정치적 접근 방식"이라고 경계하면서도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강조

했다. 송 예비후보는 "현재 구체적인 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면서 "원칙과 비전이 같아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월 15일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제주 교육 수장인 김광수 교육감의 등판 시점도 관심사다. 김 교육감은 4월 안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교육감의 책무를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는 것이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관련 입장은 별도의 자리에서 밝혀겠다고 언급했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도의원 예비주자에게 듣는다 (8)제주시 삼양동·봉개동

현역의원 불출마... 민주당 경쟁 치열



박두화 박안수 김태관 김유준

더불어민주당 '3파전' 구도 박두화 vs 박안수 vs 김태관 국힘 김유준 부위원장 고심 중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는 현역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 비례대표 박두화 의원(58)이 첫 지역구 도전에 나선 가운데 박안수 전 제주시 삼양동연합청년회장(54)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도전장을 내밀었고, 김태관 전 제주도문화예술훈원장(54)도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유준 도당 부위원장(49)이 출마를 고심 중이다. 박두화 의원은 "지난 3년여 동안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담아왔다. 이제는 삼양·봉개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결과물로 바꾸겠다"며

"달콤과 교통, 노인 복지시설 인프라는 물론 검은모래축제를 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안수 예비후보는 "'요청을 접수하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생활 SOC 복합문화센터 건립, 제주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도시가스 복지 대전환, 삼양해수욕장 일원 활성화 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 사업 및 봉개동 야영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관 예비후보는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잇고, 삼양·봉개동을 '명품 문화 도시'로 만들겠다"며 "삼양 검은모래 레포츠축제 개발·육성과 봉개 친환경순환센터 및 에너지타운 조성, 도련 청소년 교육·복지 및 청년정책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유준 도당 부위원장은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

<광동보도, 정리·삼도일보 김동건기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문·문화교육 수강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4월 전문·문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인 창업 카페 음료 과정, 처음 시작하는 부동산 경제, 체험교정을 위한 발레 기초 등 총 27개 과정, 448명 규모로 운영된다. 1인당 월 2개 과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과정의 연간 중복 수강은 제한된다.

수강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다. 문의 710-4202, 4243.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도정혁신 원탁추진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현안 우선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김채현기자

문대림, 도정혁신 원탁추진위 질의응답 "감산 연연 않고 도민과 함께 승리할 것"

문대림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경선을 앞두고 감산 논란과 관련해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연연하지 않고 도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문 의원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도정혁신 원탁추진위원회 기자회견 후 진행된 질의응

답에서 '경선 감산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인데 이를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할 말은 많지만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도정혁신 원탁추진위원회가 제주 현안 해결과 미래 전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위는 도정 현안 우선 혁신과제로 ▷2중교향 갈등 해소 및 도민 자기 결정권 조속 실현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강화·대형 국정 과제 유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섬식 정류장 추가 공사 중단 및 사업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김채현기자

국민의힘, 제주지사 후보에 문성유 공천

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문 후보에 대한 공천 면접을 실시한 직후 이같은 결정 사

항을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문 후보는 기획재정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 미래산업 정책을 담당해 왔다"며 "누구보다 제주의 현안을 잘 이해하고, 국가적 시야에서 풀어야 할 수 있는 전문가형 도지사 후보로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공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제주도선관위를 방문, 제주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국회·부미현기자



문성유

제주시 공고 제2026-900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2차)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일련번호	분묘 소재지	지목	기수	비고
1	제주시 화북이동 5398-4	전	1기	
2	제주시 화북이동 5480-3	전	1기	
3	제주시 영평동 682-5	전	1기	

2. 개장사유
대유대림-간드라마음(중로1-11호선) 도로확장사업(1공구), 신성여고-아복로(대로3-1-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1공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자공원 봉안동) ☎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 시설 안치

5. 공고기간 : 2026. 3. 10. ~ 2026. 4. 19.(41일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 도시계획과) ☎ 064)728-3524
○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 ☎ 064)728-2562, 2568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명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위 공고인 : 제주시장(도시계획과)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 제19조에 의거 제3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삼도일동) 한라일보사 3층 회의실

3. 안 건 (案件)
①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2026년 3월 11일

주식회사 한라일보사
대표이사 김 한 옥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털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 보장
신구간 맛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